

1920년대 미국 사냥복에 관한 연구

이영주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Men's Hunting Clothes in the 1920s

Young-Joo Lee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ung-Ang University
(2006. 6. 13 토고)

ABSTRACT

In the decade of the 1920s in an America, with booming of economy, people had more money. And with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people can afford expensive traveling throughout Europe. With this reason they were exposed to a nobility of European style and liked royalty more than before. American hunting man wanted traditional dress to express their status as a psychological code and the reason of the existing very similar hunting garment in nowadays is based on this belie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merely understanding the styles of American Men's hunting and shooting garments in the 1920s but understanding the psychology of the people. People quite clearly do not dress according to function or need alone and, in fact the consumption of clothes increasingly serves no other purpose than to fulfill or express psychological or social, rather than practical need.

Key words: Hunting garment(사냥복), Shooting garment(사격복), European Influence(유럽의 영향),
Leisure activity(여가활동)

I. 서론

패션스타일은 인간의 미학적 가치기준, 자아감, 정치적 경제적 상황, 사회조직, 과학기술, 그리고 예술사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을 반영하는 문화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시대의 사회적 움직임과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당대의 패션특징을 이해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의 남성사냥복 패션이 전통적인 스타일에서 커다란 변화 없이 고수되는 그 원인을 유추해 보고자 함이며 사냥복과 사격복의 스타일이 19세기 중반 이후 다른 스포츠 종목과는 달리 올드패션의 직물을 선호하고 입는 방식도 전통을 따르는 데는 상류층의 여가생활과 그에 따른 드레스코드를 고수하는 것이 현대에서도 귀족적임을 추구하는 목적이 담겨 있으리라 보고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더 나아가 유럽황실의 사냥복 스타일이 미국에 전파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유로 본 연구는 1920년대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상황과 사냥복 스타일의 연관관계를 조사하여 그 당대의 상황이 사냥복 스타일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도출해내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빅토리아 시대부터 1920년대까지의 유럽황실 여가활동의 영향과 미국의 여가활동으로서의 사냥이 발달하기까지를 고찰하고 유럽황실이 미국의 대중문화에 미친 영향 및 원인과 현대에도 다른 스포츠 종목과는 달리 사냥복 스타일은 그 당대의 스타일을 여전히 유지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였다.

II. 유럽황실과 미국의 사냥문화에 대한 고찰

1. 미국의 여가활동으로서의 사냥문화

1) 미국의 사냥문화의 변화

미국 사냥의 역사를 고찰하면 유럽과 비교하였을 때 사뭇 그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문학지, 회

화, 사냥교본 등을 보면 유럽에서의 사냥은 상류층의 남자들이 즐겨 한 스포츠 활동임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John C. Phillips이 1930년에 저술한 사냥과 사격에 관한 책자를 살펴보면, “이 나라에서는 최근 필드스포츠에 열중하는 남성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이 사격은 벽지의 사람이나 전문 포수들에 의해 행해지는 일이라 여겼었다”¹⁾라고 쓰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미국 남성들이 사냥을 스포츠로 여기고 즐겨 하기 시작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그 시기보다 조금 이전인 1920년대에는 이미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경향으로 각종 스포츠활동이 활발해진 시기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수많은 요소들의 결과에 기인하는 데 이 시기에는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변화들이 급진적으로 일어났고 따라서 대중의 심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 시기의 주된 흐름은 그 이전 시대보다 바빠진 일상생활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여가활동을 더욱 추구함에 따라 이 시기에는 각종 스포츠 활동이 봄을 이루게 되었다.

2) 여가활동으로서의 사격문화 확산

가장 인기 있던 스포츠의 하나가 사격이었다. 스포츠로서 자기매김하기 이전인 19세기 중반에는 총기의 발전과 함께 사격이 대중적인 여가활동이라기보다는 사격은 단지 미국에서 오지의 시골 사람이나 전문 사냥꾼의 생계수단활동에 불과했다. 19세기 말부터는 사격, 특히 윙슈팅(wing shooting)²⁾이 소수의 상류층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여가활동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점차 늘어가기 시작한 사격인구와 그들을 겨냥해 사격에 대한 주제를 다룬 많은 책자들 특히 *American sportsman*과 같은 사냥개, 총기, 사냥새에 대해 다룬 책이 많이 출간되면서 사격은 그 어느 때 보다 인기 있는 종목이 되었다.³⁾

이와 같이 1920년대 미국에서는 사격이 사랑받았던 여가활동임을 쉽게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예로 1929년 8월 발간된 *Men's wear Magazine*에서 다룬

주말여가활동으로서의 사격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면 증명이 된다:

인생이란 얼마나 멋진가, 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위한 완벽한 차림새가 말이다; 오늘은 파리, 내일은 스코트랜드 북부의 공장에 출장가며, 또는 멋쟁이 스타일 리더가 모여 적절한 옷을 잘 차려 입고 골프매치를 즐기며; 또 아마 런던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근교에서 목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주말을 보내는 것이 말이다. 금요일 우리는 사격을 한다, 왜냐하면 광시즌이기 때문이다. 몇 마일을 걸어야 하고 최근에 내린 비때문에 힘이 들지만 너무나 흥분되는 신나는 일이다. 물이꾼들의 학성이 들리곤 이내 총소리가 울려퍼진다. 다음 새들은 어느 방향에서 올라올지 하는 기대감과 흥분으로 가슴이 두근거리게 된다.⁴⁾

또한 이 당시에 미국에서는 여우사냥도 유행하였다. J. Stanley Reeve에 의해 1928년 출판된 *Fox-hunting Recollections: A journal of the Radnor Hounds and other packs*라는 문헌에서 Henry G. Vaughan(미국 여우사냥협회에서 25년간 종사한 전문가)은 이 책자의 소개말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리브(Reeve)씨는 *Foxhunting Recollections*에서 오늘날 말과 사냥개를 배치시키며 준비하는 사냥활동은 유행하고 점점 번져나가는 추세이며 스포츠맨이나 스포츠맨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흥미로서뿐만 아니라 갖춰야 할 중요한 몇 가지점을 쓰고 있다.- 레드너 헌트(Radnor Hunt) 클럽은 현재 미국에서 보여지는 스포츠 중 귀족으로 여겨지는 사냥개를 이용한 사냥에 대해 최고의 전문가인 Horace B. Hare의 지도아래 고급스럽고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사냥을 행하고 있다. 게다가 레드너 헌트 클럽은 최근 퍼블릭 클럽이 되었고 사냥개에 대한 신청금을 지불하면 누구나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방식은 영국에서는 흔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널리 보급되어 있는 방식이 아닌 관계로 레드너 클럽은 대중들에게 호응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레드너 클럽은 사냥스포츠에서 지켜야 할 기본정신 몇 가지 예와 전형적인 미국 정신들을 만들었다.⁵⁾

이로 보아 사냥은 당시에 미국남성들 사이에서 점점 즐겨 하는 여가활동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중반경부터 시작된 유럽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2. 유럽황실의 여가활동이 미국인의 사냥에 미친 영향

1) 유럽황실과 상류계층의 여가활동

영국의 유명한 총기회사 홀랜드 앤드 홀랜드(Holland & Holland)의 서적인 The Shoothing Field에 쓰인 바에 의하면 “웨일즈의 왕자 에드워드 7세(Edward VII)는 여우사냥을 그만두고 사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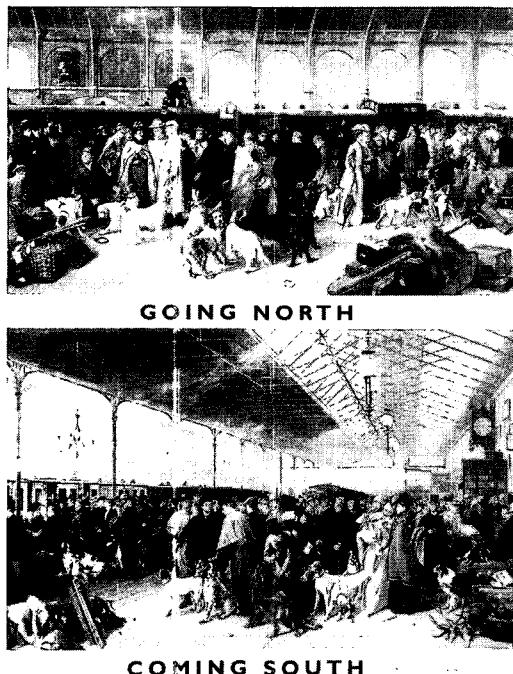
〈그림 1〉 사격파티를 위해 원저를 방문한 포르투갈의 왕과 왕비,
에드워드 7세의 양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음⁶⁾



〈그림 2〉 사격을 하는 에드워드의 아들 조오지 5세⁷⁾
그는 영국의 최고의 사격수4명에 드는 최고의 솜씨를
갖고 있었음. 19세기말.

열중하기 시작했다(그림 1). 그리고 그의 아들 조지 5세(George V)는 이 나라에서 가장 사격을 잘하는 4명안에 꼽히는 사격 숨씨를 자랑한다(그림 2). 웨일즈의 왕자 에드워드 7세 이후 왕가의 사람들은 사격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게 되었다”⁸⁾ 라며 당시의 왕가의 사격열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초기 회사는 1902부터 에드워드 7세에게 총기를 공급했고 조오지 5세에게는 1911년부터 공급했으며 스페인의 알폰소13세(Alfonso XIII)에게도 1931년까지 각 종 총기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유럽의 황실가족들이 사냥을 즐겨 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영국에서 여가활동으로서의 사냥과 사격은 상류층에서 행해졌다. 빅토리아 시대의 이런 상류계층 사이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옷차림은 패션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예절규범으로 간주되어 규제받았는데 사냥복에도 지켜야 할 코드를 정하였다. 한편 산업



〈그림3〉 George Earl 회화 'Going North and Coming South', 1895년작.

이 장면은 런던역이 사격시즌을 맞이하여 스코트랜드행 기차에 탑승하려는 대중들로 붐비는 장면을 묘사한 것임.
The National Railway Museum in York.



〈그림 4〉 사격시범(Gun trials)과 클럽컨테스트는 1880년대 영국의 생활 중 흔히 접할 수 있는 단면이었다.⁹⁾

화에 따라 중산층도 부를 축적하게 됨에 따라 외모와 행동양식이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 가고 있었다.¹⁰⁾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상류층의 생활을 모방하고자 하는 중산층에서는 예결과 에티켓을 중요시하는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사냥이나 사격을 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다(그림 3, 4). 이런 스포츠를 황실가족과 같은 귀족적인 신사다움으로 간주한 것이고 여가활동시의 드레스코드 또한 그들을 모방한 것 또한 지극히 자명한 일이다.

2) 유럽의 영향

1920년 말경 미국은 호경기로 인해 부를 축적한 중산층이 증가하게 되고 경제적 여유로 인해 유럽으로의 여행이 자유로와 지고 자연히 유럽의 스타일에 접할 기회가 증가하였다. 그들에 유럽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특히 웨일즈의 왕자는 미국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그 어느 시대 보다 미국사람들로 하여금 귀족적인 고귀함을 사랑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¹¹⁾ 그에 대한 정보는 사진기와 인쇄술의 발달로 빠르고 정확하게 유럽으로 퍼져 나갔고 교통발달로 인해 미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식이 되었다. 그렇게 미국에서도 부를 축적한 상류층들은 그들을 신분 상승의 증거로 유럽황실이나 귀족들의 생활을 그대로 모방함으로서 그들 자신을 귀족시 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노출하였다. 그 중 하나가 의상에서도 유럽황실의 패션경향을 따름으로서 나름대로의

ドレス코드를 정하여 사냥문화를 즐겼으리라 추정된다.

III. 1920년대의 미국 사냥복 스타일과 현재의 스타일 비교

사냥을 취미생활로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자 적절한 옷차림과 매너가 중요시 되었고 실제로 여러 잡지를 통해 이러한 옷차림과 매너에 대한 정보가 공급되었다. 1929년 발행된 잡지 *Men's Wear*에서 쓰여진 기사, 'Some Hints on the Wearing of "Pink"'에서는:

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정확하고 권위적인 사냥복 스타일에 대한 정보가 오늘날 필요 시 되는 요구에 맞게 쓰여져 있다: 사냥생활을 원하는 모든 남자들은 세련된 스타일을 원하는데 특히 "pink"를 입을 때 더욱 그러하다. 나는 일상복차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사냥복에만 신경을 유난히 쓰는 이를 알고 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진정한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사냥복처럼 완벽한 재단과 마름질이 필요한 스포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냥복이 잘 맞지 않는다면 속옷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자연히 사냥복은 자태가 나지 않고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이런 기후에서는 실크와 순모의 훈방직이 사냥복에서는 필요조건인 바지의 주름이 덜 가게 하는 데 적당하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양말도 같은 소재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 지면상에는 모든 관련된 세부사항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즐거리로 쓰여진 내용은 이 분야최고의 권위자에게도 비평받을 내용이 없는 신뢰있는 내용임은 확실하다.¹²⁾

그리곤 이 잡지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냥복과 사격복에 관한 적당한 차림새에 대한 그림과 설명을 게재하였다(그림 5, 6). 이런 기사들은 광고가 아닌 상세하고 권위있는 사냥복과 사격복에 관한 정보였다. 이러한 에티켓은 19세기 중반에 개발된 영국의 에티켓과 매우 흡사하고(그림 7, 8)에서 살펴보면 19세기 후반의 에드워드 7세의 사격복과 미국의 1920년대의 사냥복이 변화없이 유사하며 이 사실은 미국인들이 영국의 전통적인 복장을 따라 한데서 연유된다. 당대에 새로운 세대를 위한 스키나 비행을 위한 스포츠 복장을 비교해 보면 사냥복은 올드

패션의 트위드나 평직 같은 무거운 직물을 사용하였고 입는 방식도 전통을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사냥복이나 사격복 스타일은 사실 19세기 중반 이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9, 10).

놀폭 쟈켓(Norfolk jacket)은 라운지 코트(lounge coat)의 새로운 버전으로 1860년대 초반에 나타나서 처음에는 놀폭 블라우스(Norfolk blouse)라 불리웠었던 의복으로 앞중심과 뒤중심 양쪽으로 박스 플리츠와 허리벨트가 있는 디자인으로 니커보커(knickerbockers)와 함께 착용되었다.¹³⁾(그림 7, 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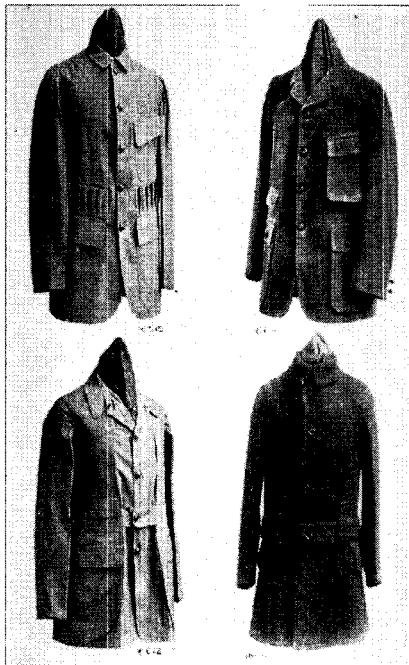
"말과 사냥개를 이용한 여우사냥은 18세기초에 진지하게 시작되었다. 사냥터에서 착용했던 의상은 편리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필요에 의해 일상승마복이었다."¹⁴⁾ 그러나 1920년대의 사냥복과 승마복을 관찰해 보면 빅토리아 시대의 의상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사냥복도 이 시대 스타일과 여전히 비슷함을 알 수 있다(그림 11, 12, 13, 14)



〈그림 5〉 1929년 잡지 *Men's Wear*에 실린 사냥복에 관한 정보.¹⁵⁾



〈그림 6〉 잡지에 게재된 사냥복 제안 일러스트레이션,
1929년.¹⁶⁾



〈그림 9〉 미국 브룩스브러더스의 1920년대말 사냥복:
사격복 상품 카탈로그¹⁹⁾



〈그림 7〉 19세기말의 에드워드 7세의 사격복 차림.¹⁷⁾



〈그림 8〉 1929년 미국의 주말 사격파티의 한 장면.¹⁸⁾



〈그림 10〉 19세기말의 사격 복장.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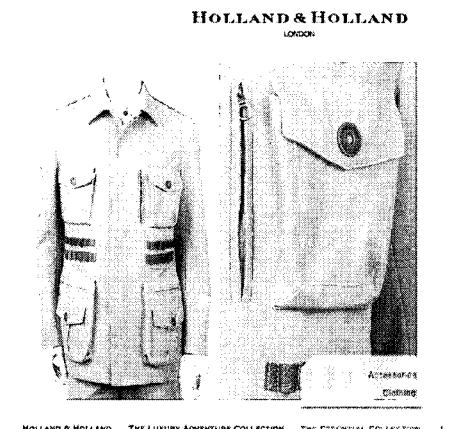
〈그림 11〉 브룩스 브러더스 회사의 사냥복으로
1970년대에 판매된 기성복 제품.²¹⁾



〈그림 12〉 2000년도에 판매된 사냥복스타일, 1920년대의
스타일과 매우 비슷함.²²⁾



〈그림 13〉 2006년 S/S 훌랜드 앤드 훌랜드의 사냥복
스타일²³⁾



〈그림 14〉 2006년 S/S 훌랜드 앤드 훌랜드의 사격복
스타일²⁴⁾

V. 결론

본 연구에서 다룬 미국의 1920년대 사냥복과 사격복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의복스타일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추구하는 심리적인 측면이다. 그 당대의 사람들이 여가활동을 그토록 추구한 이유와 유독 사냥복과 사격복이 스포츠가 생긴 이래 스타일의 큰 변화가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지에 대한 고찰이다.

인간은 의복을 단지 기능적이나 필요에 의해서만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인 자

아를 표현하고 '나족시키기' 위해 입는다는 것이다.²⁵⁾ 그리고 패션의 심리적 측면에서 본 발달과정은 의복이 단순히 실용적이고 유용성 측면에서의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고 인지할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다.²⁶⁾

1920년대의 미국은 경제적인 번영으로 부유층이 증가하게 되었고 발달된 교통수단으로 인해 유럽 전역으로의 사치스러운 여행이 가능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쉽게 유럽의 황실문화와 귀족생활에 쉽게 노출 될 기회가 많아졌다. 미국의 사냥을 취미생활로 즐겨 했던 남성들은 유럽 스타일의 전통적인 사냥복식을 통해 그들의 지위를 나타내고자 했던 심리학적 측면이 해석되고 현시대에도 그 사냥복의 스타일이 커다란 변화없이 사랑 받는 이유도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1) Phillips, J. C. & Hill, L. W., Ed. (1930). *Classics of the American Shooting Field*. Boston: The Riverside Press, p. 12.
- 2) 새나 클레이 표적 등 나는 것을 표적으로 하는 사격.
- 3) Phillips, J. C. & Hill, L. W., *op. cit.*, pp. 12-13.
- 4) Men's Wear, 18 December 1929, p.86.
- 5) Reeve, J. S. (1928). *Foxhunting Recollections*. Philadelphia & London: J. B. Lippincott Company, pp. 17-18.
- 6) King, P., *op. cit.*, p. 117.
- 7) *ibid.*, p. 113.
- 8) King, P. (1985). *The Shooting Field: One hundred and fifty years with Holland & Holland*. London: Quiller Press, pp. 116-118.
- 9) King, *op. cit.*, p. 40.
- 10) Byrde, P. (1992). *Nineteenth Century Fashion*. London: B.T.Batsford Ltd., p. 113.
- 11) Flusser, A. (1985). *Clothes and the Man: The Principles of Fine Men's Dress*. New York: Villard Books, p. 4.
- 12) Boughton(1929). Some Hints on the wearing of Pink. *Men's Wear*, 18, December pp. 70-72.
- 13) Byrde, P., *op. cit.*, pp. 102-104.
- 14) Cunningham, P. & Mansfield, A. (1970). *English Costume for Sports and Outdoor Recreation*. New York: Barnes & Noble, Inc., p. 150.
- 15) *Men's Wear*, 18 December 1929, p. 71.
- 16) *Men's Wear*, 9 November 1929, p. 73.
- 17) King, P., *op. cit.*, p. 112.
- 18) *Men's Wear*, 18 December 1929, p. 87.
- 19) Brooks Brothers, Clothing, *Gentlemen's Furnishing Goods*. (1915). 카탈로그
- 20) King, P., *op. cit.*, p. 90.
- 21) F.I.T. Museum 소장, 저자의 직접촬영사진.
- 22) *Catalogue of Holland & Holland Company*, Spring-Summer 2000.
- 23) 2006 Spring Summer Collection, Holland & Holland. retrieved June 10, 2006, from <http://www.hollandandholland.com>
- 24) *ibid.*
- 25) Edwards, T. (1997). *Men in the Mirror: Men's fashion, masculinity and consumer society*. p. 26.
- 26) *ibid.*, p. 28.